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3 NO. 9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N. 1977



(신년 세배)

새 출발을 하면서

한인회장 김형진

새해에 축복을 빕니다.

1977년도에는 한인회가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우리 한인회는, 알뜰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으며,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사오니,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한인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 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한인회 즉 한인사회를 위해 해 준 일이 무엇인가의 질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모든 임원들이 헌신 노력 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활동, 직업양성,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될 일, 등을 하려고 하오니 여러분들께서도 한인회를 위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주저 없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를 돕는 일은 회장이나 임원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돕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자라는 우리 2세들의 전의를 길러주고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우리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창희

이제는 내육체가 내의지의 명령을 이행치 못한다. 글 한장도 써내기가 힘들다. 그래도 한번더 해본다고, 한인회신년호에 기고를 허락하였다가 벌써 새편집인의 독촉을 받았다. 나는 늙어지고 세상은 변해가니, 자아본위적인 자체의 소멸에 직면한듯, 인생의 허무, 허탈을 느끼게 된다. 종교를 거부하는자나 神의 혜택을 입지못한자는 면치 못할 절망의 감상(感傷)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고찰하면, 개인은 해체되지만, 과거역사는 현재의 불붙는 도가니로 들어오고, 이 현재의 도가니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형성되어 미래로 진전됨을 인식할 것이다. 20세기의 찬란한 문화는 과거의 모든 발전의 성과를 이용하여 새로 만든 제품들의 전사이며 21세기는 또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치를 첨가하여 창작한 신품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각 개체의 -생은 결국 영원한 산역사의 -찰라에서 그역사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허무는 아니다. 각 개체의 마땅히 행할 바는 자체본위의 망동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목표를 찾고 공존공영의 길을 밟아 전체에 공헌할 것이다.

지난一年동안에 우리 한인사회가 얼마나 엄청난게 커졌는가를 회고해 보자. 이것은 부지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런데, 우리 한인회의 조직과 활동은, 그와 정비례로 커지지 못하고 거의 현상유지상태에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줄안다. 지난一年동안 우리 한인회간부의 고충과 고투노력을 이해하여 감사한다. 성장과 발전에는

내적, 외적, 환경등의 모든조건이 잘 조화되고 협조되어야 할것이 사실이다. 시간도 걸려야 될것이다. 1976은 이미 지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 투쟁력, 진취성, 애국심이 풍부한 한국사람이 모여들었으니 앞으로 새해에는 혁혁한 활약이 생길줄안다. 특히 지난 총회이후로 선출된 신임간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임이 두터워지는 경향을 현저히 살펴 알게 되니 희망이 커지며 기대가 많아진다. 나는 이미 늙어 후퇴하였을 망정, 아직 생명이 불어있는 즉 어느 한귀둥이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씩씩할데가 있을까 바라마지 않는다.

(초대 회장)

1977년도 한인회 임원 명단

- 회장 ; 김형진 (932-3595)
- 부회장 ; Lea Jane Armstrong (531-3742)
- 부회장 ; 이종익 (762-2413)
- 총무 ; 박재인 (523-1135)
- 재무부장 ; 최금순 (285-5588)
- 교육부장 ; 김석민 (525-0467)
- 섭외부장 ; 김철준 (525-5209)
- 편집부장 ; 이수호 (935-5623)

1977년도 한인회 이사

- 이사장 ; 신로범
- 부이사장 ; 오준걸
- 이사 ; 김형진, Lea Jane Armstrong,
이종익, 김길광,
김창성, 이완구,

1977년도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 Paul H. Shin (10불) · K. Young Lee (20불)
- Mrs Lea J. Armstrong (10불)
- Mr. James Kim (10불) · Mr. Daniel Park (10불)

—한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K君!

새해 편지 고맙소. 君이 서울서 그곳에 온지 벌써 새해가 되었다니 세월은 빠르군요. 君이 고국에서 君의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들을 때 마다 나의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대학시절의 君의 모습이 였소. 구김살 없는 성품과 차갑지 아니한 君의 태도가 언제나 연상되어 왔오만 쉬 한번 그곳에 들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오. 부디 이 해에는 모든것이 如意히 성취 되도록 하오.

J.B의 해라니 티한층 슬기로운 정진이 있으시기 바라오. 君이 편지에 맺가지 이야기 한것中 老生이 얼핏 생각 되는것 하나를 적으오만 老生의 소리로 여이어나 않을까 싶어 부끄럽소. 君에서 아이들이 벌써 그처럼 컸군요. 어머니편을 답했더니 아주 반갑군요. 아버지도 무엇하지만 금상첨화로 외가쪽 기운을 물려받았을 것이므로 응당 君 이상으로 총명하고 커업게들 성겼을것이 대견히 여겨져서 말이오.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 한다니 반갑소. 흔히 듣는 일이나 이나라에서 한 국제 아이들은 부모들이 살기에 바빠서 잘 보살피지 못하여도 공부를 -특히 수학방면에- 두드러지게 잘 한다고들 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오. 후 이렇게 한국제 아이들이 어릴때 수학에 점수를 잘 얻는것을 어떤 종족의 사람들이 헛세를 부려 曰 늦게 온 사람들의 아이들이 이르는 바 양송교육만 받으면서 온 부산물로 「九九는 八에 -」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식들은 국민학교는 커녕 나서부터 계산기를 쓰다면서 어색한 자위를 할지 모르나 한인계 아이들은 「九九는 八에 -」도 알고 계산기를 누를줄도 알고, 간혹은 주먹九九도 놀놀 안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나중 모든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공헌을 세계에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나는 보오. 한인계의 아버지 특히 君모양으로 젊은 아버지들은, 한쪽서 나서 미국서 자라는 아이들이 잔래에 세계를 상대해서 여류할 능력과 자신 -자만이 아닌- 을 갈르는 일에 병철한 생각을 하셔서 무방할것 같소.

지금은 생색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른바 소수민족의 하나라고 하는 바탕에서 얻어진 것에 아이들이 自足해서는 어떨까 싶군요. 아이들은 적다는 수에서 발판을 얻었다더라도 종상은 혈로 자기네 소임을 잘 해 나감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될 때 까지, 또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기를 각자의 부문에서 기여하는 능력을 갈러주는 일에 한인계 부모들은 모자람이 없어야 될 것 같소. 이것은 결코 구구한 발작적인 경쟁심에서 성취 될 문제가 아니오. 潛心과 노력이 깃드려야 이루어질 일일것 같소.

쓰다보니 버릇을 못 버리는 결과 밖에 안되었구료. 얼골이 붉어지오만 君이 젊었을 때 대학 책에서 배가 형설수설하던 이르는 바 「옛」 훈장이 이나라에 까지 와서도 상키 못 고친 버릇이로군」이라고 생각해서 허물 마시게나!

1월 10일 서 두수

(글 쓰이; University of Washington 교수)
구 한인회 이사장

ABC 인컴-텍스社

이 선복 美 재무성공인면허소지자

- 인컴-텍스(세금)에 관한 相談 및 서류 작성을 저렴한 수수료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사무소 ; 5000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대학가)
- 영업시간
월, 화, 수, 목, 금 ; 오후 7시 ~ 오후 9시까지
토 末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ABC Income Tax Service

(교 단)
미국에서 아동 교육의 단면
김 석 민

9년째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많은 미국 청소년 소녀들이 자유를 방종라고, 도덕의 질서를 제때로 지킬 수 있는 가정교육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학생들 중에는,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좋지 못한 미국학생들의 영향을 받게되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여 공부에 취미를 얻지 못한 학생들 중에는, 운동이나 다른 과외활동에 유일한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으며, 놀기를 일삼는 미국 친구들과 윗살레, 윗헌어와 나쁜(저속한)영어를 배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장래성이 없어보이는 많은 미국학생들에 화멸을 느끼는 이곳 미국 교육자들로 부터 "너희들은 더 한심하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일이, 한국학생들의 수가 늘어 가는 이곳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한편, 착실한 미국학생들은 절대로 자유를 방종하려 하지 않으며,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최대의 노력을 하며, 공평한 매접을 받기위해 상대방으로 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올바른 태도를 보이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착실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끈고 순직한 인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보렐 중학교에서 교장 실습을 하면서, 그 근처 학교에 등교하는 한국학생들을 틈틈이 지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조언 해 주었습니다.

미국 중류급 학생들 보다 실력이 우수하다거나 훨씬 더 근면하고 착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제 주장을 하며 제때로 인간 매접을 받고 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습니다. 미국 교육 방침과 한국 교육 방침에서 그 장 단점도 설명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과정에서의 장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대로 고수하고, 미국 교육과정에서 좋은 점만을 받아 들이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끔 지도조언을 하였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한국 학부모들의 좋은 점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육자들도 늘 미국 학부모들이 본받을 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곳에 거주하시는 한국 학부모들께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녀들 가정교육에 힘써 주심으로서 보다 많은 희망과 기대를 자녀들에게 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클 쓰이; 벨라드(Bailard)고등학교 교사)

집 없으면 집은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은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홈과 이자율 양산 해드리고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해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점·아파트·호텔·도지
 ·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0112

안내 주소를....

★ 한인 주소록에 실린 주소가 잘못 되었거나 변경된 분들은 한인회(임원들)로 연락해 주시면 변경된 주소로 회보를 우송 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누락 되신 분들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O.C. (Employment opportunity Center)
교포 여러분의 직장파와 직업교육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E.O.C.에서는, 여러분의 상상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 주소; 4726 Rainier Ave. S.
Seattle, Wa. 98118.
· 전화; 725-8200

· 직업 안내; 변 종혜
· 영어 교육; 권 영길
· 직업 훈련

Income Tax 보고 요령

교포 여러분이 꼭 알아 두셔야 할 인컴-택스 작성 보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컴-택스 작성을 해서 세무국에 보고 해야 되며, 언제 까지 마감인지 또는 소정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대충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컴-택스 작성 보고 해야하는 여러분의 연경과 작년도 총 수입에 관련 됩니다. 간단히 요약 하면 (1) 미혼자 및 이혼자의 경우 1976년도 총수입이 \$ 2,450 이상, (2) 기혼자 부부는 \$ 3,600 이상, (3) 부부중 어느 한 분이 65세 이상으로서 \$ 4,350 이상 (4) 부부모두 65세 이상으로 \$ 5,100 이상 (5) 사별한 남녀의 경우는 \$ 2,850 이상의 총수입을 갖고 계신 분 모두가 인컴-택스를 작성 보고 해야만 됩니다. 이상에 열거된 분들은 모두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 되며, 개인 중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경에 관계 없이 실수입(Net earnings)이 \$ 400 이상 이면 인컴-택스를 작성 보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연경별, 수입별 보다 총수입이 적으신 분 들일지라도 인컴-택스를 작성해서 이익이 되실 분들(예; part time으로 일을 하였기에 총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월급 수령시에 \$ 10, 혹은 \$ 20 이라도 인컴-택스를 내신 분들) 도 작성 보고 하시면 유리합니다. 작성 보고 기간은 1977년 1월 1일 부터 4월 15일 까지 입니다. 소정 양식은 지난해에 보고 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받을 것이며, 받지 못한 분들, 새로 이민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거래하는 은행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클; 이 주영)

필요한 모든 식품이 있습니다.

· 주소; 9641 15th AVE S.W.
White Center.
· 전화; 762-5620

중 앙 식품

여러분의 심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등에 관하여 한인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 할 때는 서슴치 마시고 한인회 임원들에게 연락 해주시면 힘 자라는데 까지 성의껏 협조 해드리겠습니다.

● Job Bulletin ●
(사람 구함)

(1) 씨아틀 시정부 기관인 씨아틀 부인회에 한 사람의 회원 자리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는 분은 다음 주소로 이력서를 보내시고, 한인회 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십시오.

ATTN: NANCY LEONARD
Seattle Women's
Commission, 1923
Smith Tower BLDG
SEATTLE, WA, 98104
TEL: 625-4374

(2) 영어 잘 하고 영문 타이프를 최소 45 words 칠수 있는 Clerk Typist를 구합니다. 연봉 \$ 10,000 - \$ 12,000
연락처; 한인회 회장 (932-3595)

(3) 한국말, 영어, 일본말을 하실 줄 아는 분이로서 Air port에서 일 하실 분을 구합니다. 근무시간은 7시~11시 까지. (part time) 자세한 문서는 다음 전화로 연락을 바랍니다.
464-7691
Mrs. Betty Slee

서로 돕고 믿고 사는
명량한 한인 사회를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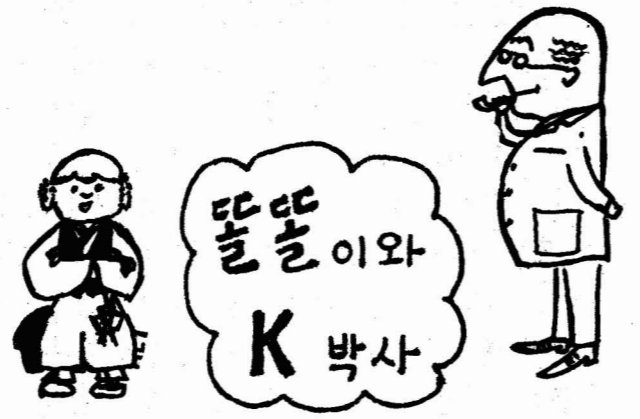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

한인회관 건립 문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교포들의 크나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포들이 정착한지 수 십년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포들의 수도 또한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인의 증지를 살리고, 뜻을 모아 펴기 위한 한인회관 하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가 찜찜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닌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를 모두의 잘못이요 부끄러움이라고 하여야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은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회장이나 임원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성공 할 수가 없으며, 모든 한인들이 적극 호응하여 협력할 때 비로소 실현 될리라 생각합니다. 한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협력 하시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음 양식을 이용 하여(오려서)수표와 함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 납부자의 명단은 매 한인회보에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관 건립 기금	
이름	
주소	
금액	

집·아파트·상가 매매는
안 병 용 부동산 으로!
 Crescent Realty, Inc.
 Federal Way, Wa.
 씨아틀·838-2010 타코마·927-7778
 Radio Page (일방전화)·572-3222



딸딸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K박사; 딸딸이도-?
 딸딸이; 박사님, 금년 한해동안 계속 우리 한인사회를 위하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세요.
 K박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인회에 대하여 편견담하고 관심이 없는것 같던데...?
 딸딸이; 한국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박사님,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요?
 K박사; 그건 그렇지...
 딸딸이; 금년에 출발하는 새 임원들은 정말 봉사 하겠다는 각오들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K박사;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한국사람이면 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하여 다 같은 마음으로 협조하고 서로 의지하는것이 당연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것 같단 말이야.
 딸딸이;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은 남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남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공연히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런 마음들은 저 푸른바다에 씻어 버려야겠어요.
 K박사; 딸딸이는 제법 딸딸라군.
 딸딸이; 월요, 박사님.
 K박사; 그런데, 딸딸이는 올해 몇 살이지?
 딸딸이; 저요? 글세요, 잘은 모르지만 나이가 수시로 변동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5살, 어떤 때는 40살, 또 어떤 때는 70살쯤 되는 것 같아요.
 K박사; 농담도 잘 하는 군.
 딸딸이; 박사님, 안녕히 계세요. 한 달 후에 뵙겠어요.

<취미 생활> 새 기르는 기쁨



글: 김 짐 자

우리집에서는 약 60마리의 새들을 기르고 있다. 저녁이면 가벼운 발걸을 뒷뜰로 옮긴다. 상쾌한 잔디밭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껴며 새장 앞에 다다르니 아름다운 새 소리가 더욱 정답게 들린다. 뒷뜰 모퉁이에 자그맣게 자리잡은 새장,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서 나의 하루 일과에서 마지막 작업을 시작한다. 알을 품고 있는 짝에 먼저 시선이 간다. 고즈넉이 앉아서 변함없이 품고 있는 것을 보니 무척 대견스럽다. 한곳에는 둘을 넣어주니(마른뜰) 넣어 주기가 바쁘게 두놈이 서로 교대로 풀을 입에 물고 열심히 둥지 속을 드나든다. 알 자리를 만드려나 보다. 집쟁이 꼬마들이 파드득 거리며 이리저리 날뛴다. 어머품을 갖떠난 새기들이다. 아마도 내가 뛰어나 낫이 설어 두려운 모양이다. 물을 새로히 갈아주고 모이도 주고 계란껍질도 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추를 넣어주면 요란스럽게 지저귀며 야단들이다. 심심한 청채가 그들의 입맛을 돋구는 모양이다. 이렇게 먹이를 갈아주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새들의 산란을 보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6개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 16일 정도면 부화된다. 이것 역시 새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연간 번식 횟수 역시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1년에 3~5회 번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더우기 재미있는 것은 짝을 잘못 지어 주었을 때 부부싸움 하는 것을 이따금씩 보게 된다. 쪼이고 쪼이고, 서로 함께 모이도 먹지 않는다. 나란히 앉지도 않는다. 양놈은 항상 무정반을 낳기 마련이어서 적당한 짝을 다시 지어 주어야 한다. 더욱 심한 것은 격투가 벌어져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즉시 관리자가 발견하여 격리시키지 않으면 한 놈이 종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그마한 새장 안에서 움직이는 생명들의 이모습 저모습을 바라보면 생동

하고 번성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느껴 진다. 약동하는 생명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로운 안식속에 마음이 젖어 든다. 이상적인 사육장을 마음 속에 설계해 보며 벅찬 희망에 마냥 가슴이 설레인다.

- <참고 사항>
- a. 새 종류.....십자매, 금화조, 백금화조, 앵무새,
 - b. 가 격.....(소매·한 쌍)
 - 십자매 (32~47\$)
 - 금화조 (21~32\$)
 - 앵무새 (160\$)
 - c. 새장 시설비 (1개당)
 - 일반 목조 (5~6\$)
 - 고급 (15\$ 정도)
 - d. 전망..... 카나리아가 시장화 하기에 전망이 좋음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 합니다

와싱턴주 한인회는 여러분들의 협조로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상 돈갖 어려움을 감수 하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까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력과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인하여 뜻을 펴 보지 못하고 있는 한인회를 위하여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년 5분이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교포들을 위하여 값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매년 5분 이상 10분, 20분까지도 납부해 주신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 납부자 명단은 매월 발행되는 한인회보에 발표 함으로써 영수증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금 투자는 금해 주시기 바라며 수표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식을 모려서 동봉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977년도 한인회비 납부서

이름	
주소	
금액	

詩

새벽 산보

안 성진

새벽 산보를 하다가
갑자기 가마타고 시집가던 누나 생각이 났다
보리밭 고개로 가마가 살아질때
엄마 울고 나 울던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다.

나도 바보지
옛 일은 생각해 무엇 하나
새벽 산보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짱-해 졌다

보리이삭 수업을 불에다 태워
손바닥에 부여 주던 엄마 생각이 갑자기 났다

모두가 그렇게 가난만 하던
산밭에 오막살이 초가집 동네.

여기는 미국땅 넓은 하늘 밑
글 잔데가 전혀 없는 보리밭 농장

나도 바보지
나 혼자 텅-빈 언덕 길에서
옛 일은 생각해 무엇 하나?

* 미국 온 첫째 봄
West Chicago 에서.

남서 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9455 15th SW Seattle/Washington 98126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Res. (206) 932-3595

五洲食品店

FIVE SEAS

• Food Stamp 취급
• 주문 배수.

상점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30 7:00
토요일 - 일요일
10:30 6:00

52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Tel: 362-6250, 525-2925

(수필)

無題 其一

조 병석

오늘이 갑진년 동진달 마지막 날인가 보다.
1977년 1월 아무게날 어느날이라 해도
내게는 상관 없으니 그저 갑진 동진달 이름이
면 그것으로 족하리. 이렇게도 못한 자신이 산
천수려한 조국 대한민국을 훌훌리 떠나 온 지
도 두달여가 넘어서고도 두어날. 호구지책의
다급함이 전전공공, 뭉게도 찾아온 곳이 지금의
내가 몸 담아 일 하는 곳이다. 오기 무섭
게 슬한 이력서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보냈던
만 어디 내 못한 주제에 합당함이 가당키나
하던가. 그저 묵묵히 주어진 몫의 할당만 감당
하면 될줄로 알고, 불러준 곳이 지금의 이곳이다.
어찌 생각하면 그지없이 고맙고 한편으론 조금
은 괴심 하기도 하다. 허나 어찌리, 이곳에
온지 반년이 지나도록 터부사리 신세가 이제
는 독립된 생활로 가정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
으니 그지없이 고맙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Income Tax 라면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기로 약속하는
저를 불러 주십시오!

- 중소기업 장부 정리
- 일반인컴-텍스
- 세무 상담
- 퇴직 연금 상담
- 기밀 절대 보장

• TACOMA (206) 588-0333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sh. 98499

• SEATTLE (206) 322-3782
1702 11th Ave. S. #105
Seattle, Wash. 98134

이규영 회계사

자못 가슴스런 자취 이리.
어저께의 낙서를 들여다 보노라니 이렇게
적었다.
「새벽 한기를 새롭다 할 검색도 없이 얼얼
이는 발길로 알터에 닿으면 왜 이리도 외소한
느낌은 한 샅이 지나 두달여가 가깝도록 가시
지를 앓노도. 이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나날의 전
후이다. 내 작업장의 분위기며 인종의 시선
달음이 그들의 외모에 성급과 인종의 내음도 내
음이겠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맥맥히 흐르는 동족
의 정감이 단절된 탓이리. 도시 적응이 가능
할 그런 주제도 못되는 자신의 물결이 더 없이
죽은한 형색으로 혼란한 자신을 되돌아 본다.
불원 40년쯤을 코앞에 둔 장장한 남아의 경
륜은 어드메 두고 의사전달의 형용마저도 천자
문의 코플리게 어진것의 흉내를 닮아 가는 내
이 귀이한 기원은 무슨 연유인가?
생각권에 내 인생여정의 취사부러가 아리
송 한바는 얼적이 앉아 온 터이지만 조상
대대로 뼈를 묻고 이어온 혈액의 근원을 등진자의
과보라면 내 달가롭게 감내 하리라.
내 자신이 갈겨놓은 낙서이긴 하지만 곰곰 들여
다 보노라니 웬가 서글퍼 짐은 어인 일이고.
그렇게나 누누히 다잡한 그와디(내 안사람)동성
하기만 한 설제는 어드메 두고.....

광고 접수

• 매월 발행되는 한인회보에는 한인 업소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발전을 위하여 광고를 실고
있습니다. 광고는 매월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관한 문의는 다음 전화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 932-3595
- 762-2413
- 935-5623

소식 - 신·구임원 한자리에 -

1월2일 오후 6시 부터 약 2시간 동안 '경원'에서 신·구임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우리 한인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한인회 초대 회장이신 이창희 선생께서 마련하신 이날 모임에서는 온갖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아동교육문제, 노인복지문제, 교통직장 알선 등이 특히 신임 임원들의 관심의제였다. 주정부의 도움을 구하여 한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시도해 보려는 회장의 계획도 큰 관심사였다.

김회장·E.O.C 관계자와 협의 -

1월초순경, 김 형진 회장은 교포들의 직업문제와 기타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하여 Olympic 호텔에서 E.O.C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날 참석자는 김 회장, 김흥기씨, 변종혜씨, 권영길씨였는데, 앞으로 상호 긴밀한 연락과 협조로서 우리 교포들의 직장을 알선하기로 합의 하였다. 김 회장은 이날 E.O.C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며, 한인회의 계획도 설명 하였다.

* 구정 맞이 아리랑의 밤 *

- 8년간 계속해 온 "아리랑의 밤"을 올해에는 구정을 기하여 베풀고자 하오니, 와싱턴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교포들께서는 부부동반 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 1977. 2. 19(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 Washington plaza Hotel.
- 회비 ; 성인 1인당 7불. 학생 5불.
- 민요계의 여왕 송춘희 특별출연
- 고전무용, 사교춤, 간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 티켓 예매처
- 씨애틀 지역 (오대양, 중앙식품, 한국집, 경원, 씨애틀 한국여행사, 아리랑, 김의여행사, 헨리장 여행사)
- 타코마 지역 (한국여행사, 서울식품, 병부식당, 북경식당, 동양원)

~ 타코마 소식 ~

1월 초순, 타코마 지역 한인 부녀회는 잠정 총회를 가졌는데, 이날 양원 개선도 하였다고 한다. 전회장 Mrs. Armstrong 여사는 대다수 회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되었다고 한다.

매도

- 자동차 정비공장
- 위치 좋고 성업 중임
- 연락처 ; 525-6452 (오후 6시 이후)

Seattle, wa.
Korean Golf Club.

금년으로 비등을 맞은 골프회는 새해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 위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지난 12월 총회에서 새 집행부(회장; 심 인수. 부회장; 김 일영. 총무; 에디 윤. 재무; 이 종완)를 구성한 골프회는 2월 중순에 1977년 첫 Tea Party를 하여 12월까지 자정을 겨룬다고 한다. 2화제를 맞은 주UN대사 Trophy 쟁탈 3개 도시 대항을 비롯한 많은 Tournament가 거행 된다고 하는데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간단한 자격을 갖추고 년회비를 내면 된다고 한다.

• 문의처 ; Seattle 이 종완 (243-0624)
Tacoma 에디 윤 (SK2-9237)

투고 환영

매월 발행 되는 한인 회보는 약 1,200부 발행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라며, 좋은 의견 들을 전해 주시면 정성껏 심도록 하겠습니다.

★ 투고 내용 ★

- 시 (詩)
- 수필
- 취미생활 소개
- 아동 교육 문제
- 기타 한인사회에 알려져 유익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 일기문
- 생활수기
- 주변의 소식, 미담.
- 건강 관리.

★ 투고 할 주소

Soo Ho LEE
4011 SW. 100th St
Seattle, wa, 98146

★ 편집에 관한 문의... 935-5623

★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시는 원고는 날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안내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는 한인회비, 한인회관 건립기금, 기타 한인회로 보내시는 수표는 다음 주소로 우송 하시기 바랍니다.

SEA-WA. KOREAN, ASS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CHECKS MAY BE MADE PAYABLE TO :

KOREAN, ASSN.

새로 이사 온 이웃을
친절히 안내 합시다


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잡지나 책자에서 내용은 제목만 훑어 보고, 다음에는 편집후기를 읽어 본다 고 합니다. "편집후기나 멋지게 써 보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에게는 그런 분들의 요구에 충족한 편집후기를 쓸 수 있는 글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은 나중에 쓰기로 하고 우선 감사할 말 부터 써야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원고를 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글을 보내 주신 이 창희 선생님과 서두수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직접 원고를 가지고 오신 김 석민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인회보이지만 좋은 원고를 구하여 지면을 잘 매꾸어 가 기관 위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노라고 하였지만 여러 교포독자들의 마음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체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 더더구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행여나 오자 탈자가 있더라도 너그러히 보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고 청약을 하면 한인사회를 위하여 폐히 승낙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나 개인을 위한 부락이 아니고 우리교포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보 편집에 관한 좋은 의견들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헨리 장 여행사

- 한국 왕복 \$ 653 (숙료 포함)
 - 미국 국내 항공표 배달 가능.
- 9002 12th Ave. N. E.
Seattle, WA 98115
(4부설 이점 중)
phone : 523-7057 (24 hrs)
Henry Chang Travel Service



ARROW REALTY

1122 EAST 72nd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4


부동산 매매

가옥 식당 상업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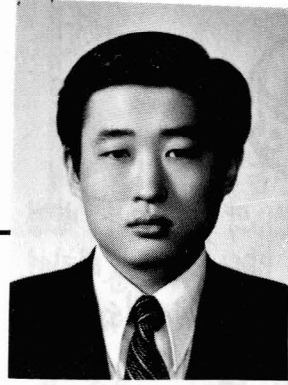
모텔 토지 호텔

김 일 영 Off: 475-6262

IL YONG KIM Res : 845-2236



謹賀新年



歲暮에 삼가 교포 여러분들의 健勝을 빕니다.
 제가 보험업에 종사한 짧은 기간 동안 이렇듯 발전
 하고 성장하였음은 오직 고객 여러분들과 교포 諸賢
 들의 사랑과 協助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도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보험요구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결심을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보다 큰 幸運이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뉴욕 생명보험

김 천 균 拜

SEATTLE: 4121 Seattle-First National Bank Bldg., Seattle, Wa. 98154
(TEL) 363-3704 623-0609 (RES) 525-5209

TACOMA: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
(TEL) 588-0333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이다.
 신을 찾아내고 이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신을 구하려고 애쓰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신을 구하지도 않고 발견 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 파스칼의 팡세에서 —
 DR. MANSOP HAH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